

일본 축제문화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이 덕 구*

(e-mail : dklee0618@hj.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면서 | 3. 민속학적 관점의 연구 |
| 2. 마쓰리(祭 ¹⁾)와 일본(지역)사회 | 4. 종교학적 관점의 연구 |
| 2.1. 마쓰리(祭 ¹⁾)의 본래적 의미 | 5. 도시인류학 및 도시사회학적 관점의 연구 |
| 2.2. 전후(戰後)일본 사회변화에 따른 마쓰리(祭 ¹⁾)의 전개 | 6. 나오면서 |

キーワード : 祭¹⁾(Maturi), 祭礼(Sairei), 祝祭(Syukusai), 祭¹⁾の研究動向(Research Trend on Maturi), 학제적 관점(An interdisciplinary view)

1. 들어가면서

본고는 일본에서의 일본 축제문화(祭¹⁾, 祭礼, 祝祭)에 관한 연구흐름과 동향을 살펴 본 것이다.

일본에서의 마쓰리¹⁾에 대한 연구는 대략 초기(1960년대 이전)에는 민속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야나기타(柳田国男)를 선구로 하는 민속학자들은 마쓰리 속의 신(神)에 주로 관점을 두고, 이를 통하여 중세의 농촌사회나 문화양상을 파악하려 시도 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서구유학파들이 중심

* 해전대학교, 부교수, 문화인류학

1) 오늘날 일본의 축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는 ‘祭¹⁾’, ‘祭礼’, ‘祝祭’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祭¹⁾’는 ‘마쓰리(祭¹⁾)’로, ‘祭礼’와 ‘祝祭’는 ‘제례(祭礼)’와 ‘축제(祝祭)’로 번역하여 각각 표기하였으나, 맥락에 따라서는 ‘사이레이(祭礼)’, ‘슈쿠사이(祝祭)’와 같이 원음 그대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는 ‘마쓰리’로 나타내었다.

이 된 종교학자들에 의해 신(神)에서 사람으로 연구관점이 이동하였으며, 처음으로 마쓰리에 지역사회개념이 도입되는 등 연구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나 참여집단의 변화 등 사회변동에 따른 마쓰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인류학이나 도시사회학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꾀하는 재생수단으로서의 마쓰리에 주목하는 연구도 많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학제적(學際的) 관점과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석되어온 일본의 축제 마쓰리에 대한 연구 흐름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마쓰리(祭り)’, ‘사이레이(祭礼)’, ‘슈쿠사이(祝祭)’ 등의 기초적인 용어들에 관한 개념의 이해와 그 차이도 확인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문화(특히 일본의 축제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일본 축제문화에 대한 변용의 과정과 현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 따른 선행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2. 마쓰리와 일본사회

2.1. 마쓰리의 본래적 의의

아시다(芦田徹郎)에 따르면 일본 사회에서의 마쓰리(祭り)는 원래 지역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²⁾, 과거 마을단위의 촌락(ムラ・マチ)생활은 하나의 작은 지역 사회 공동체 내부에서 대체로 조달되고 있었기에, 그러한 시대에

2) 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 유신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쇼와(昭和)기 전시체제에 돌입할 무렵까지 근대 일본사회는 농가와 소상공인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런 구성에서는 이에(家)와 마을(村町)이 기반이 되는 운명공동체적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성원 속에 신분적 상하가 있었고, 사회적인 구속이 강하였으며, 지배종속관계가 생겨남과 동시에 상호부조도 일어나기 쉬웠다. 농업 집락을 예로 들면 대다수의 마을에는 지주가 있어 지주에 대해서 소작인은 약한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지주는 농촌사회의 지배층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이런 계층구조는 농촌의 지주 소작 관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도시에서도 공장주와 노동자 같은 관계성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특히 조나이(町内)단위 마쓰리(祭り)에서는 이런 계층구조를 반영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福武 直(1981) 『日本社会の構造』, 東京大学出版会, pp.5-6)

는 주민 전체적인 상호 관련성을 확인시키고 ‘우리’를 의식시키는 마쓰리(祭り)는 사회 집단의 존립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었다.³⁾

일본의 전통적 도시에 있어서의 신사제례(神社祭礼)는 대부분은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에 걸쳐서 완성되었으며, 가장 화려하고 호화로운 제례(祭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일본적 지방자치의 방식이 일단 완성을 본 1888년의 행정구역제도 개편(市制·町村制)에 따른 국가의 통제와 행정지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자영(自營)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시기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우치(内)’로 구성된 생활 공동의 구조를 완성시키고 조나이(町内)사회의 내실을 제례(祭礼)를 통해 다진 시기이기도 했다.⁴⁾

이처럼 일본의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산업화에 의한 사회의 변모가 막 일어나고 있던 이 시기까지, 전통적 도시 공동체에서의 신사제례(神社祭礼)는 아시다시피 말하고 있듯이 공동체의 확인과 존립이라는 본래적 의의를 가지고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차츰 산업화의 진전에 의한 지역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조나이(町内)의 공동사회는 단지 관념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2.2. 전후(戰後)일본 사회와 마쓰리의 전개

그래서 이처럼 ‘최대의 사회적 기능이 공동체 (재)확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전통적 제례인 마쓰리(祭り)는 전후(戰後) 고도경제성장기까지 전국적으로 쇠퇴가 현저했다. 이는 마쓰리(祭り)의 사회적 기반인 공동체 자체의 붕괴가 진행된 탓이 크다.⁵⁾ 농촌부에서는 마쓰리(祭り)의 실제적인 담당자인 젊은

3) 芦田徹郎(2001) 『祭りと宗教の現代社会学』, 世界思想社, p.30

4) 松平 誠(1990) 『都市祝祭の社会学』, 有斐閣, p.30

5) 전후(戰後)의 일본사회구조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일본의 국가기구에 있어서는 전후(戰後)의 개혁으로 지방자치가 중시되면서 상당히 광범위한 자치기능이 주어졌다. 획일적인 국가의 강제는 제지되고, 지자체의 민주적 발의가 가능하게 되고, 지방에도 민주화 분위기가 흡입되었다(福武, 1981, p.76).” 그리고 사회구성에서는 농업구조 변화와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고용노동의 변화로 근대 일본사회를 제약하고 있던 촌락과 도시의 모든 계급지배의 기반이 와해되어 갔다. 우선 촌락사회에 대해서는, 경지의 절반이 소작지인 지주제에 의한 농업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던 전전(戰前)의 일본농업의 특질이 전후(戰後)의 농지개혁으로 해방 되었다. 그 결과 농가는 소수의 전업농가와 다수의 겸업농가로 분해되고, 농촌에 사는 비농가(非農家)의 집락(集落)으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구조변화에 따른 촌락은 예전의 공동체적 소지역사회가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을(村)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다. 도시에는 ‘직업’과 ‘주거’의 분리가 진행되어, 옛날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생활이 무너지 갔다.⁶⁾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 개별적인 관심이 높은 소득과 쾌적한 사생활을 목표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다.⁷⁾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정도의 고도 경제성장기의 종언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의 대규모 마쓰리(祭))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재건하게 되었다. ‘물건의 시대로부터 마음의 시대로’(モノの時代からこころの時代へ)라는 문구가 회구(希求)되어 사라져가던 전통제례가 부활하고, 교외의 베드타운과 마쓰리(祭))가 없던 대도시에서는 새로운 마쓰리(祭))가 생겨났다. 이러한 것은 비일상적인 집합적 비등(沸騰)과 공동성이나 관계성에 대한 현대인의 회구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현대는 사회생활 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모든 조건이, 그 각각에 대응하여 전문적으로 분화(문화적으로)한 여러 집단과의 관계에 의해서 충족되며, 동시에 사람들이 그 생활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특정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자립하고, 자기의 개별적인 목적에 맞게 여러 사회집단이나 사회관계에 일시적, 부분적, 익명적, 표면적 선택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⁸⁾

그러므로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관성에 노출되어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미와 안정을 거기에서 취해야 하는,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규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상징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성스러운 상징을 스스로 찾는다. 혹자는 전통적인 제례(祭禮)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성스러운 상징에서 새로운 상징적 가치를 찾아내거나 덧붙이거나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

과거의 촌락이 가지고 있던 계층중심사회가 지주제의 붕괴와 함께 서서히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福武 直(1981) 『日本社会の構造』, 東京大学出版会, pp.76-78)

6) 제1차 산업 비중의 현저한 하락에 호응한 2차, 3차 산업의 비율 증가는 일본사회를 자영업주 주체의 사회에서 고용자 주체의 사회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도시에서는 1960년까지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된 뒤의 고도경제성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그 구조가 변화했다. 도시주민으로 새로운 중산층과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상업 자영층은 적어졌다. 도시 안에 혼재되어 온 가내 공업적인 영세 공장도 적어지고, 잔존하고 있는 공장의 전망도 불투명해 불안에 찬 가운데, 상공 자영업주들의 마치(町)에 있어서의 지배력은 이전보다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전(戰前)의 공동체의 계층적인 사회구조의 유지는 그 존립 기반을 잃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곤란해 졌다(福武 直(1981) 『日本社会の構造』, 東京大学出版会, p.127)

7) 전계서3), 芦田徹郎(2001), p.31

8) 전계서3), 芦田徹郎(2001), pp.30-31

를 확인하려 한다.⁹⁾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위치설정을 위한 존재로서, 마쓰리는 다시 일본사회에서 소중한 존재가치를 얻었다.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마쓰리의 부활뿐만 아니라 집객을 위한 행사로서의 신(神)이 없는 ‘시민마쓰리(市民まつり)’ 즉 ‘슈쿠사이(祝祭)’도 각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마쓰리의 성쇠에는 일본 사회의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산업구조와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시대에 호응한 정신세계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민속학적 관점의 연구

일본에서의 마쓰리 연구는 야나기타쿠니오(柳田国男)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야나기타(柳田国男)는 메이지(明治)시대부터 쇼와(昭和)기까지 수많은 농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민속학의 기초를 닦았는데, 이는 일본중세의 농촌사회를 파악하려는 시도였다. 그(1946)는 저서 『日本の祭り』에서 과거 농촌(촌락공동체)의 ‘마쓰리(祭り)’와 ‘제례(祭礼)’에 대한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쓰리(祭り)의 본체였다. 즉 본래는 술과 음식을 가지고 신을 대접 하는 사이에 일동이 어전에 시좌하는 것이 마쓰리(祭り)였다. 그리고 그 신에게 드린 것과 같은 음식을 말석에서 모두가 받는 것이 음복(나오라이) 이었다.¹⁰⁾

제례(祭礼)는 즉 마쓰리의 일종으로, 특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즐거움이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경꾼이라는 것이 모여드는 마쓰리(祭り)가 제례(祭礼)라 해도 좋을지도 모른다.¹¹⁾

일본 마쓰리(祭り)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9) 森田三郎(1990) 『祭りの文化人類学』, 世界思想社. 제2장 2절 요약

10) 柳田国男(1990) 「日本の祭り」 『柳田国男全集13』, 弘文堂書房, p.112

11) 위의 글, p.38

구경꾼이라는 무리의 발생, 즉 마쓰리 참가자 중에 신앙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자면 심미적 입장에서 이 행사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도시 생활을 화려하게도 하는가 하면, 어린 시절을 즐겁게도 했지만, 신사의 핵심이 되는 신앙의 통일은 약간 파괴 시키면서, 결국에는 마을에 살면서도 마쓰리는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기풍도 길러졌다.¹²⁾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야나기타(柳田)는 마쓰리(祭り)와 제례(祭礼)를 구분 짓는 최대요인으로 관객의 존재를 말하고 있으며, 야나기타(柳田)가 중심이 되어 발전한 민속학은 마쓰리(祭り)를 영신행사(迎神行事)로 상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민속학자인 스와(諏訪春雄)는, 야나기타(柳田)민속학에서의 마쓰리(祭り)의 구성 요소를 ① 재계(物忌み), ② 신령내림(神靈來臨), ③ 오코모리, ④ 신인 공식(神人共食), ⑤ 후 잔치(後宴)의 다섯 과정으로, 혹은 「神迎え(神降ろし)-神遊び-神送り」의 3단 구성으로 정리하기도 했다.¹³⁾

한편 도조(東条寛)는 야나기타(柳田)와 같은 맥락의 관객 발생에 따른 마쓰리(祭り)의 변화양상을 “신을 맞이하여 공식(共食)하는 본래의 의의가 구경꾼의 눈과 귀를 의식한 낮 동안의 행사에 맞춰졌다”고 지적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본래, 신을 맞아 대접하고, 공식하는 것에 본래의 의의가 있었던 마쓰리(祭り)가, 곧 도시의 발생과 전개 속에서 구경꾼이 나타나고, 마쓰리(祭り)의 주체가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낮 동안의 행사에 역점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현재의 제례는, 주간행사가 중심이며, 오히려 마쓰리(祭り)라고 하면, 그 주간의 행사 그것을 가리키는 말처럼 이해하

12) 전개서 10), 柳田国男(1990), p.46

13) 스와(諏訪)는 야나기타(柳田)의 축제관을 ‘선신형(善神型)’이라고 정리한 후에, 일본의 마쓰리(祭り)에는 ‘선신형(善神型)’뿐만 아니라, ‘선악양신형(善惡兩神型)’마쓰리도 있다고 전제하고, ‘선악양신형(善惡兩神型)’마쓰리의 특징으로 첫째, 축제에서 맞는 신(神)은 선신(善神)만 아니라 악신(惡神)이나 흉신(凶神) 등이 다양하게 존재함. 둘째, 다양한 신(神)들을 총괄하고 제어하는 신(神)으로서의 선신(善神)의 존재가 인정됨. 셋째, ‘선악양신형(善惡兩神型)’마쓰리는, ‘선신형(善神型)’이 벼농사 문화에 기초한 신앙이 기반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문기(縄文期)의 잠곡문화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마쓰리(祭り) 속의 다양한 신(神)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諏訪春雄(1998) 『日本の祭り』と芸能-アジアからの視座』, 吉川弘文館, p.20)

는 경우가 많다.¹⁴⁾

나아가 도조(東条寛)는 야나기타(柳田)가 중심이 되어 발전한 민속학에서의 마쓰리(祭¹⁾)가 농촌 혹은 촌락공동체의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사(催事)나 신사(神事)를 대상으로 이들이 중세나 혹은 그 이전의 사회, 문화, 민속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면, 중세기부터 비교적 대규모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례(祭禮)’에도 역사 문화적으로 현재까지 비교적 변화가 없어, 금후 각지의 근세 도시제례를 지역별로 상세히 비교검토하면 일본 제례문화(祭禮文化)의 역사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근세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사회문화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¹⁵⁾

이와 같이 야나기타(柳田)가 중심이 된 민속학에서의 마쓰리(祭¹⁾)는 농촌 혹은 촌락공동체의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사(催事)나 신사(神事)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종교적 의례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서 장례나 제사, 의례 등, 신(神)과 인간과의 소통을 의미하며 마쓰리(祭¹⁾)의 핵심은 영신(迎神)행사로 상정하고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한편 ‘제례(祭禮)’는 도시문화(주로 중세 이후 근세의)의 영향을 받은 관객이 존재하는 화려한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속학은 현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마쓰리(祭¹⁾)나 제례(祭禮)에는, 도조(東条)가 말하고 있듯이 ‘먼 과거의 민속적 심성과 문화’가 현재도 비교적 그대로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마쓰리(祭¹⁾)나 제례(祭禮)를 연구함으로써, 일찍이 있었던 것과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재의 마쓰리는 문헌자료나 회화자료에서 볼 수 있는 과거의 마쓰리(祭¹⁾)와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즉, 민속학이 마쓰리(祭¹⁾)나 제례(祭禮)를 조사 연구하는 최대의 목적은 과거로부터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으로 특정 지역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행사이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물과 조직, 행사의 구조는 비교적 변하기 어려운 근거로 상정되어 있고, 이들의 계보를 풀어냄으로써 중세·근세의 사회 사정이나 문화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⁶⁾

14) 東条 寛(2006) 『都市祭禮の民俗学 四日市祭の歴史と民俗』, 岩田書院, pp.9-10

15) 위의 책, p.21

4. 종교학적 관점의 연구

일본에서 종교학과 관련지은 마쓰리(祭)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야나가와(柳川啓一)와 소노다(蘭田稔)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야나가와(柳川)의 마쓰리(祭)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미 일 안보 개정 시의 항의운동이 계기였다고 하면서 항의운동과 마쓰리(祭)사이에는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위로 부터의 관료화에 대한 일본적 저항형태의 모델이 마쓰리(祭)의 모델로 볼 수도 있다. 즉, 비일상적인 형태로 폭발하는 저항이다.”라고 한다.¹⁷⁾

여기에서 야나가와(柳川)는 마쓰리(祭)의 성립요소로, 일상성과 비 일상성을 지적하고, 마쓰리(祭)는 비 일상성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1960년대 진행된 전통 사회의 붕괴와 근대 사회의 성립이 있으며, 이 시기는, 종교의 세속화나 개인화 등으로, 기존의 종교가 쇠퇴·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야나가와(柳川啓一)는 이러한 시기에 서양의 인류학자(반 제넵, 터너, 리치 등)의 연구 성과에서 마쓰리(祭)를 종교학적, 또는 인류학적 어프로치로 해명하려고 시도하였고, 우선 마쓰리(祭)의 여러 특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지적한다.

- (1) 신직(神職) 등의 종교 전문가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마쓰리의 주역, 지역민, 구경꾼까지 포함하여)이 조직의 능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동원’ 된다.
- (2) 전통과 연결되는 상징이 ‘동원’ 된다.
- (3) 개별적인 의례의 복합으로서 전체를 하나로 꿰는 주제가 있어 드라마에 비교할 수 있다.
- (4) 마쓰리에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과거와의 관계, 이에(家)나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재확인 한다.¹⁸⁾

정리해 보면, 야나가와(柳川啓一)가 말하는 마쓰리(祭)의 특징은 (1)다수의 인적동원, (2)전통에 유래하는 심벌 동원, (3)의례의 복수성과 전체적인 스토리성

16) 桑江友博(2009) 「都市祝祭祭礼研究・再考」 武蔵大学総合研究所編 『武蔵大学総合研究所紀要』 19号, p.99

17) 柳川啓一(1987) 『祭と儀礼の宗教学』, 筑摩書房, pp.123-124

18) 위의 책, p.80

확보, (4)관계성 재확인 등으로 정리된다.

한편, 소노다(藪田稔)는 마쓰리(祭り)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마쓰리(祭り)란 극적 구성 하에 제의(ritual)와 축제(festivity)가 상승적으로 출현하는 비일상적인 집단의 응축상황(communitas)의 위상에 있어서, 집단에 의거하는 세계관이 실제적(real)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상된 세계상에서, 집단은 그 존속의 근원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성원의 에토스가 보장된다. 요약하면, 마쓰리(祭り)는 집단의 상징적인 재생현상이다.¹⁹⁾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야나가와(柳川啓一)와 소노다(藪田稔)의 연구는 서구의 인류학과 현상학적 사회학의 영향을 받아 마쓰리(祭り)나 제례(祭礼)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민속학자들이 추구해온 과거와의 연속성이나 유사성의 확인이 아니라 마쓰리(祭り)나 제례(祭礼)의 구조를 들여다 본 것으로, 이들의 연구는, 반 제넵이 제기한 통과의례설(격리기, 과도기, 재통합)²⁰⁾과 리치의 세 국면설(격식성, 가장, 역할전도)²¹⁾을 계승하여 제례(祭礼)에는 제의(ritual)와 축제(festivity)라는 두 가지 상반된 구조적 측면이 존재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거침으로써 코뮤니타스²²⁾ 상황을 낳고 있다고

19) 藪田 稔(1990) 『祭りの現象学』, 弘文堂, p.64

20) 아널드 반 제넵이 제기한 '통과의례'라는 개념은 인간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순간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종교적 신념을 사회생활에 관련시키는 많은 의례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치르는 입사식의 패턴에 따르고 있는 것처럼 의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분리과정을 겪은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와 재통합된다는 즉 상징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축제라는 통과 의례도 개인들의 단순한 여흥거리나 소일거리가 아니라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 규범을 반영한 문화 현상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류정아(2013) 『축제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4-8)

21) 에드먼드 리치는 균형을 추구하는 통합적 체계의 사회 모델을 부정하면서, 사회는 항상 다양한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가 작동하며, 그러한 기제까지도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한다고 하면서, 시간의 단절성과 불연속성을 의례의 속성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의례의 세 가지 특성을 격식성과 거짓꾸밈, 그리고 역할전도로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되는 행동 유형이라 해도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류정아(2013) 『축제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23-33)

22) 빅터 터너는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을 '라미날리티단계'라 칭하고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나 공간을 '코뮤니타스'라고 불렀다. 터너의 '라미날리티'와 '코뮤니타스' 개념은 반 제넵의 통과의례 개념에서 발전한 것으로 특히 과도기에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축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류정아(2013) 『축제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35-36)

한다.

마쓰리(祭¹⁾)의 세계는 일상적인 세속의 세계와 질적으로 다른 비일상적인 신성한 세계이며, 일상의 규범은 여기에서는 소멸되고, 비일상이라기 보다는 반일상의 공간이 된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며, 사회적 지위의 구별은 없어지고, 변장, 가면이 횡행한다. 비일상이 되기 위해서 일상적인 관례는 분해되고, 단식과 포식, 나체와 가장, 격식과 무례와 같은 모순된 것이 마쓰리에는 동시에 존재한다.²³⁾

야나가와(柳川)가 말하고 있는 ‘속(俗)의 세계’와 ‘성(聖)의 세계’의 변용에 대해서는, 반 제법의 통과의례의 세 단계(격리기, 과도기, 재통합)를 발전시킨 것이고, 축제 속에서 “모순된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리치의 세 국면(격식성, 가장, 역할전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노다(蘭田)는 이를 응용하여 전술한 마쓰리(祭¹⁾)의 두 가지 측면인 ‘제의(ritual)’와 ‘축제(festivi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마쓰리(祭¹⁾)에 있어서 이 이상한 표상의 위상은, 사회 행동의 두 가지 상반된 양식의 강조에 의해서 실현된다. 하나는, 일상에 내재하는 규율을 극단적일 만큼 엄밀하게 강조한 행위를 통해서 일상성을 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일상의 규율을 역전하는 파괴 행위에 충실하여 일상성을 돌파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방식은 모두 축제 특유의 존재 질서에 의한 상징적 의미가 주어져 있다. 그것이 제의(ritual)와 축제(festivity)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복합되어 처음으로 축제의 초월적인 표상력이 발휘된다. 리치가 말하는 형식성과 가장성이 양자의 특성에 해당한다.²⁴⁾

특히 소노다(蘭田)는 여기서 마쓰리(祭¹⁾)라는 문화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진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현실과는 다르지만 인간 사회에 필요 불가결한 또 하나의 현실임을 강조한다. 또한 마쓰리(祭¹⁾)나 제례(祭禮) 등의 연구 목적을 과거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내면을 분석하는 것, 즉 당사자의 현실적인 주관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고 한

23) 전계서 17), 柳川啓一(1987), p.88

24) 전계서 19), 蘭田 稔(1990), p.60

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마쓰리(祭り)를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본 최초의 연구도 소노다(藪田, 1967)이다. 그는 마쓰리 참가의 제상과 계층(祭り参加の諸相と階層)”에서, 복합적인 집단을 구성하는 지역사회나 도시에서 신사의 종교 활동에 각 집단이나 계층이 어떻게 결부 되는가를 연구하여 신사(神社)와 제례(祭礼),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있는 방식을 밝힌다. 이러한 접근은 그 후, 인류학과 사회학에서의 축제²⁵⁾, 제례(祝祭, 祭礼)연구의 기초적인 관점으로 계승되는 시각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부여된다.

5. 도시인류학 및 도시사회학적 관점의 연구²⁶⁾

소노다(藪田)의 연구에서 마쓰리(祭り)에 지역사회 개념이 도입된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는 주로 도시인류학, 도시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마쓰리를 지역 사회와의 관계성(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실증적 연구가 이뤄지게 된다. 그 초기의 필드워크에서는 주로 전통적 마쓰리(祭り)를 대상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착목한 연구로서 요네야마(米山俊直)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요네야마(米山俊直)는 교토(京都)의 기온마쓰리(祇園祭)를 비롯하여 오사카(大阪)의 텐진마쓰리(天神祭), 고베(神戸)의 고베마쓰리(神戸まつり)를 인류학적 어프로치방식(참여관찰, 인터뷰)으로 조사하고 각각의 축제를 받치고 있는 사회 집단의 분석을 시도했으며²⁷⁾,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쓰리에 대한 견지와 특색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쓰리(祭り)를 일상생활이라는 ‘케(ヶ)’의 개념에 대립하는 특별한 날의 특별한 의복과 음식, 특별한 규칙과 행위나 기분 혹은 의식 등을 의미하는 비일상

25) 여기서 앞서 소노다(藪田)가 사용한 ‘축제(祝祭)’라는 용어는 마쓰리(祭り)의 구조적 측면에서 ‘제의성(ritual)’에 대립되는 ‘축제성(festivity)’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쓰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학(후술하겠지만, 주로 松平 誠)에서는 슈쿠사이(祝祭)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6) 도시 인류학이나 도시 사회학의 영역에서의 마쓰리 연구는, 마쓰리가 도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 매김 되어 있는지를 다루는 인류학적 접근과, 도시 사회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기호로 마쓰리를 다루는 사회학적 접근의 연구로 대별되지만, 어느 접근도 상호 참조가 있으며, 참여관찰 및 인터뷰 조사 등이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친화성이 높아 본고에서는 두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였다.

27) 米山俊直(1974) 『祇園祭—都市人類学ことはじめ—』, 中央公論社

米山俊直(1979) 『天神祭—大阪の祭礼』, 中央公論新社

의 ‘하레(ハレ)’ 개념에 입각하여 “일상성에 대한 비일상적인 장과 비일상적인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경험”이며, 도시에 있어서 그것을 “도시주민의 심의현상(心意現象)의 하나의 표출형태”라 정의하고, 마쓰리(祭り)의 개최 목적은 “평소의 관계를 넘어서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연대 회복”에 있다²⁸⁾고 하면서, 도시마쓰리(都市祭り)의 특징에 대하여, 첫째, 도시의 마쓰리(祭り)는 개인적인 신사(神事)를 제외하면, 그 어떤 마쓰리(祭り)도 모두 야나기타(柳田)의 분류에 따르면 제례(祭礼)이며, 관객의 존재를 의식한 ‘보여주는 마쓰리(見られる祭り)’라는 점. 둘째, 보여주는 마쓰리이기에 끊임없이 다양한 궁리와 취향이 가미되고 풍류가 바뀌는 점. 셋째, 풍류의 궁리 속에 창조성이 인정된다는 점. 넷째, 도시마쓰리(都市祭り)는 주로 여름철에 열리고 있는 점. 다섯째, 마쓰리(祭り)의 확산현상이 나타난 점, 즉 종교로부터의 이탈과 세속화의 일반화가 인정되는 점²⁹⁾을 들고, 이어서 도시마쓰리(都市祭り)를 유효하게 하는 다섯 가지의 필수 체크리스트로도 제시했다.³⁰⁾

- ① 다섯 가지 요소: 정해진 때와 장소, 심벌, 변모한 공간, 제단과 의식, 참가자
- ② 네 개의 필요: 남녀노소 전 계층의 참여, 자금, 연출, 전통
- ③ 세 개의 사회관계: 혈연, 지연, 사연
- ④ 두개의 시간 구분: 일상(케)과 비일상(ハレ)
- ⑤ 하나의 목표: 평소의 교제를 넘어서는 마음의 연대 회복 - 커뮤니티스의 출현

요네야마(米山)의 연구에서는 이 다섯 점을 살펴 볼 때 마쓰리(祭り)의 창작성이나 전파성, 주체 조직의 다양성, 여기에 이용되는 문화 아이템의 다양성 등으로 연구관점이 옮겨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요네야마(米山俊直)는 현대사회는 혈연(血縁), 지연(地縁)중심 사회에서 사연(社縁, 회사인연)중심 사회로 이행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쓰리(祭り)에의 참여집단도 사연(社縁)중심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³¹⁾면서, 마음의 시대(こころの時代), 만남의 시대(ふれあいの時代)라는 인간성 회복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주변 집단의 기능을 높여 마을에 대한 애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으로 지연재생장치(地縁再生装置)로서의

28) 米山俊直(1986) 『都市と祭りの人類学』, 河出書房新社 p.134

29) 위의 책, pp.198-201

30) 위의 책, p.204

31) 米山俊直(1999) 「地縁再生の装置としての祭り」 『都市問題』 90卷8号, 東京市政調査会編, p.13

도시제례(祭礼)에 주목해야 한다³²⁾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사회변화에 따른 마쓰리(祭り)의 기능적 측면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도시의 제례(祭礼)를 지역 재생과 인간성회복 장치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네야마(米山)에 의해 지역사회의 변동과 마쓰리(祭り)의 기능이 언급되면서 마쓰리(祭り)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지역 커뮤니티 재생과 아이덴티티 확인 등)과 역할을 논한 연구가 급증했다.

모리타(森田三郎)는 나가사키 쿤치(長崎くんち)를 필드워크하고, 이 마쓰리(祭り)는 정치적 기원을 가지고 관광 축제로서의 성격을 질게 띠고 있으면서도 도시 내 근린 생활 집단을 축제의 기초단위로 해 왔다. 이 마쓰리(祭り)가 우지코(氏子)³³⁾들에 의한 제사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근린 사회의 인간관계의 확인을 위한 의식’이었다고 하면서 마쓰리(祭り)를 개최하는 전통적 지역사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역의 재건 필요성을 언급하였고³⁴⁾, 또한 “인간은 상징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마쓰리(祭り)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³⁵⁾며 마쓰리(祭り)를 통하여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격, 지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³⁶⁾.

와자키(和崎春日)는 교토(京都)의 ‘左大文字’제례에 연계된 다양한 참가자들은 불(火)이라는 기호(메시지)에 관련하는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送り手(演ずる者)①行事实施者(地元地域の祭祀集団や宗教儀礼の中心施設)
 - ともす者
 - ②状況提供者(行政当局, 観光事業者, 消防当局, 警察当局)
 - 支える者
- 受け手(見る者) ③信仰的参加者(祈る者)
 - ④観光旅行者(見る者)

32) 전계서 29), 米山俊直(1999), p.23

33) 신사(神社)의 제사권(祭祀圈)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신사(神社)에는 우지코(氏子)구역이 정해져 있고, 우지코(氏子)의 자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마쓰리(祭り)에 참여한다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34) 森田三郎(1980) 「長崎くんち考—都市祭礼の社会的機能について—」 『季刊人類学』 11卷1号, p.113

35) 전계서 9), 森田三郎(1990), p.142

36) 전계서 9), 森田三郎(1990), p.169

먼저 기호를 생산(연출)하는 사람(演ずる者)을 보내는 사람(送り手)으로, 보는 사람(見る者)을 받는 사람(受け手)으로 정의하고, 다시 보내는 사람(送り手)을 행사실시자(とます者)와 상황제공자(支える者)로 구분하고, 행사실시자(とます者)에는 지역의 제사집단과 종교의례의 중심시설 등을 구성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상황제공자(支える者)는 지자체의 행정당국, 관광사업자, 소방당국, 경찰당국 등을 들고 있다. 받는 사람(受け手)에도 ‘左大文字’에 관여하는 방식과 행동양식에 따라 신앙적 참가자(祈る者)와 관광여행자(見る者)로 대별하였다.

또 불(火)과 대(大)이라는 기호의 메시지가 각 집단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 즉, 보내는 사람(送り手)이자 연출하는 제례집단에게는 전통행사로 해석되며, 받는 사람(受け手)에서 신앙적 참가자(祈る者)에게는 종교행사로, 관광여행자(見る者)에게는 관광행사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하나의 기호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중층적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³⁷⁾고 하면서 도시제례(祭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특징지었다.

도시제례(都市祭礼)는, 역시, 자타가 영위하는 창조물이다. 다른 가치관과 다른 민족성을 지닌 고유의 도시주민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기에, 또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도시의 시공과 새로운 시민지평을 변증법적으로 만들어 내고 구축할 수가 있다. 자신은 타인에 의해서 살고 있다. 타인도 자신에 의해서 살고 있다. 이질성의 충돌과 대항 속에, 차이를 꿰뚫는 보편성이 체득된다. 左大文字의 「大」 불이 켜짐과 동시에, 사람들은 ‘도시 주민’ 신분에서 ‘시민’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시민정신이 실현되는 것이다.³⁸⁾

즉, 와자키(和崎)가 말하는 도시제례는 이러한 참가자들이 서로 대항하는 긴장 관계를 거쳐 공통의 지평이 발현되고, ‘시민’으로 승화되는 과정이라는 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와자키(和崎)의 연구는 도시제례에 관여하는 사회집단과 참여집단의 중층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도시제례를 도시주민의 통합과 시민성 회복을 위한 시스템이자 메시지를 생산하는 기호로 보았다는 점에서

37) 和崎春日(1987)『左大文字の都市人類学』, 弘文堂, pp.19-30

38) 위의 책, p.258

의미가 깊다 할 것이다.

한편 아나미(阿南透)는 아오모리네부타마쓰리(青森ねぶた祭り)를 대상으로 지역의 전통마쓰리가 관광 상품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문화 권력의 작용원리와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하는 마쓰리(祭り)의 변화(관광 상품화과정)에 주목하였다.³⁹⁾

이와 같이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차츰 농촌보다 도시의 마쓰리(祭り)를 필드워크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나 마쓰리(祭り)의 존재의의와 기능성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에 이어 도시화에 따른 마쓰리(祭り)의 변화 즉, 지역의 마쓰리(祭り)를 관광 상품의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 사회의 재생, 혹은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늘어났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마쓰리(祭り)가 안고 있는 긴장관계나 부정적인 요소들, 또 이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이나 대항관계 등에 대한 연구도 보조를 맞추었다.

사회학자인 아시다(芦田徹郎)는 오랫동안 개최가 통제되었던 쿠마모토(熊本)의 ‘보시타마쓰리(ボシタまつり)’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최근 각 분야의 축제 연구에 지역 사회의 재생, 정체성의 확인, 인간성의 회복, 새로운 공동성이나 관련성의 구축, 등등을 강조하는 예정조화론적 편향이 보이는 경향이 약간 우려스럽다. 마쓰리가 ‘내부’를 결속시키고 구성원에게 삶의 의미와 힘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외부’에 대한 각종 차별, 배제, 억압, 폭력 희생 등이 붙어 있었고, 오늘도 그것이 표면화되어 표출되는 것은 드물지 않다⁴⁰⁾고 하면서 마쓰리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지적했다. 또 “행정에 의해 관광행사로 빨리 들어간 신사(神社)의 축제는, 소위 ‘지붕위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버린’상태로 혹은 황금알을 구해서 어미닭을 죽여 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릴 위험성도 있다”⁴¹⁾ 하면서 전통적인 신사축제의 무분별한 관광화도 경계하였다.

타케자와(竹沢尚一郎)는 아시다(芦田)가 말한 차별과 배제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하카타기온야마가사(博多祇園山笠)의 조사 보고에

39) 阿南透(2003) 「青森ねぶたの現代の変容」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03集

40) 芦田徹郎(1999) 「現代都市祭礼のアイロニー—祭りの不可避性と不可能性をめぐって—」 宗教と社会, 別冊1998年ワークショップ報告書, p.100.

41) 芦田徹郎(1990) 「祭りと現代社会・序説」 『熊本大学教養部紀要人文・社会科学編』 25, p.56

“마쓰리(祭り)는 지역사회가 자신의 존속과 확장 때문에 고유의 자원인 인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장치이며, 친화와 공동성의 교환으로 참여자의 능력을 지역 사회에 바치게 함으로써 주위에 대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일이 가능했다. 그리고 마쓰리(祭り)와 지역사회와의 사이는 지배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더욱이 그 지배는 몇 겹씩 얽힌 복잡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⁴²⁾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서 1)연령차별(연장자를 최상위에 둔 명확한 계층과 연장자에게만 허용된 명예), 2)조나이(町内) 간의 차별(마쓰리를 주도하는 조나이와 단순히 가세하는 조나이의 격차), 3)조나이(町内) 내의 차별(마쓰리 자금이 적극 가담할 수 없는 빈자의 존재), 4)남녀의 차별(마쓰리에서 여성 배제)을 들고 있다.⁴³⁾

또 시오쓰키(塩月亮子)도 오키나와나하(沖縄那覇)의 유곽에서 유녀(遊女)들이 차려입고 마을을 행진하는 ‘주리우마교레쓰(尾類馬行列)’의 중지와 부활을 둘러싼 지역민들 간의 긴장관계를 살펴보았다. ‘주리우마교레쓰(尾類馬行列)’는 적어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유녀(遊女)와 관련된 마쓰리(祭り)로 비난을 받아 자주 중단에 내몰려 왔는데, 관광 진흥과 전통보존, 시민융합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부활파의 주장과 마쓰리(祭り)의 존속은 공창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중단파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⁴⁴⁾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야나가와(柳川啓一, 1987)나 야베(谷部真吾, 2000)와 안도(安藤直子, 2002)등의 연구도 마쓰리(祭り)를 둘러싼 주최단체나 참가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대항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마쓰리를 개최함에 있어서 단체끼리 대항관계에 있다고 이해한 다음 각각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요소가 어떻게 관련되어 마쓰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타협하고 협력관계로 전환되는지의 과정에 관한 해명과 함께 ‘마쓰리’라는 문화가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각각의 시대 속에서 어떤 지역사회의 방식이 반영되는지 등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근년에 ‘요사코이마쓰리(よさこい祭り)’와 같은 ‘선택연(選択縁)’으로 결성된 참가집단이 급증하면서 ‘선택연(選択縁)’에 착목한 연구도 많

42) 竹沢尚一郎(1998) 「博多祇園山笠」 季刊民族学』84, p.38

43) 위의 책, p.38

44) 塩月亮子(2000) 「沖縄における尾類馬行列の歴史社会学的考察」 日本生活学会編 『祝祭の100年』, ドメス出版, pp.122-123

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마쓰리(祭り)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변화에 동반하여 증가한 ‘선택연(選択縁)’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며 ‘선택연(選択縁)’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우에노(上野千鶴子, 1984)⁴⁵⁾였지만, 구체적인 실증 연구 속에서 마쓰리(祭り)에 보이는 ‘선택연(選択縁)’에 대한 분석의 깊이를 더한 사람은 마쓰다이(松平 誠, 1990)였다. 그는 축제(祝祭) 연구를 통하여 일본 도시생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해명할 수 있다는 도시사회학의 관점에서 도시축제(都市祝祭)의 변천을 논한 대표적 논자로서 축제(祝祭)⁴⁶⁾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일상 세계의 반전, 그것으로부터의 탈피와 변신에 의해서, 일상적인 현실을 객관화·대상화하고, 그에 따른 감성의 세계를 부활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동 행위”⁴⁷⁾

또 그는 현대는 ‘사회 해체기’로서 ‘사회적 통합이 풀리고 집단의 해체와 개인으로의 회귀’가 현저한 시기라 했다. “사회 해체기는, 생산 중심주의의 금융적인 윤리 관념에서 해방되고, 그동안의 효율적 시간절약적인 가치관에서 자기충족(만족)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축제(祝祭)는 ‘현대 생활문화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면서 축제(祝祭)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時間集約的祝祭

閉鎖系

45) 우에노(上野)는 혈연(血縁), 지연(地縁), 사연(社縁)을 ‘고를 수 없는 인연(選べない縁)’으로, 이와 대비되는 개념을 ‘고를 수 있는 인연(選べる縁)’, 즉 선택연(選択縁)으로 규정하고, 선택연(選択縁)은 구속성이 없는 사회관계인 대신에 조각과 부분을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의 지고성(至高性)을 주장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上野千鶴子(1984) 「上野千鶴子 『第2章 祭りと共同体』 井上俊編 『地域文化の社会学』, p.63)

46) 마쓰다이(松平)는 제례(祭礼)나 축제(祝祭)가 이벤트나 이와 비슷한 행사로 변화되고, 합중형축제(合衆型祝祭)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있는 현시점에서 “폐쇄적”인 축제는 이미 순수한 유형으로는 거의 남지 않고, 제례 행사의 형식은 전승되더라도,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의미에서의 지연(地縁)만으로 완전히 닫힌 제례는, 우선 있을 수 없다고 해도 좋다(松平, 2000, p.205)라며 신(神)이 없는 단순한 집객을 위한 관광 상품적 이벤트와 행정기관이나 기업, 상점가 등에 의해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하는 시민마쓰리(市民祭り)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축제(祝祭)’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7) 松平 誠(1990) 『都市祝祭の社会学』, 有斐閣, p.2

伝統型
 管理指向型(A)
 開放系
 合衆型
 管理指向型(B)
 空間集約的祝祭⁴⁸⁾

이러한 축제 유형 중에서 폐쇄계(閉鎖系) 전통형(伝統型)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 거의 고정화되어 외부의 신규진입이 쉽지 않고, 제도·신앙·습속 등의 관례를 가지며, 그것들을 축제의 기반으로 하여, 이들을 유지하는 사회집단으로 운용되는 축제이다. 한편, 개방계(開放系) 합중형 축제(合衆型祝祭)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자신들의 ‘자유 의지의 선택’에 의한 다양한 인연(選拔縁)으로 극히 일시적으로 연결되어, 개인이 ‘합(合)’하여 ‘중(衆)’을 이루고, 혹은 ‘당(党)’, ‘연(連)’, ‘강(講)’ 등을 형성하여 만들어내는 집합적인 축제로 정의⁴⁹⁾하면서, 합중형(合衆型) 도시축제의 특징을 다음 5가지로 들고 있다.⁵⁰⁾

- ①지역에서 이륙과 개방(축제의 모체가 지역주민까지를 포함하여 지역집단으로부터 이륙하여 넓게 개방되어, 지연이나 혈연과 무관한 사회인연의 다양한 단위집합을 만들어 냄)
- ②보고·보여주는(ミル・ミセル) 다양성(관중까지를 포함하여 보고·하고·보여주는(ミル・スル・ミセル)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서로 뒤섞일 수 있으며, 당일 즉석참가도 가능한 새로운 다양성이 있음)
- ③유연한 내부·개방적 외연(축제의 구성단위는 특정의 고정적인 우지코(氏子)집단이나 이에(家)가 아니라 개인의 집합이며, 가입탈퇴도 자유롭고, 집단 간의 교환도 활발히 일어남)
- ④개방형 네트워크 구성과 증식성(축제의 참여집단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매듭은 무한히 펼쳐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단위 집단 자체가 쉽게 분열, 합병하고 증식할 가능성을 가짐)

48) 전계서 47), 松平 誠(1990), p.3

49) 전계서 47), 松平 誠(1990), p.18

50) 전계서 47), 松平 誠(1990), pp.4-5

⑤비일상·일상의 구도변화와 목적지향성의 결여(축제의 참여집단은 극히 단기간의 결합으로, 일상 세계와의 연결이 부족하며, 여기서 공고한 생활 협동과 생활 조직이 형성되기 어려움)

나아가서 마쓰다이라(松平)는 이러한 합중형(合衆型) 도시축제의 참가집단인 ‘선택연(選択縁)’에 근거한 축제집단(合衆)을 지연(地縁)집단이나, 사연(社縁)집단의 ‘대항문화’로 규정하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탄생하였다고 했다.⁵¹⁾

이와 같은 ‘선택연(選択縁)’에 의한 대표적 마쓰리로는 최근 각지에 전파되어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요사코이마쓰리(よさこい祭り)를 들 수 있다.

우치다(内田忠賢)는 고치(高知)의 요사코이마쓰리(よさこい祭り)를 조사하여, 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이 마쓰리에 1998년부터 요사코이마쓰리만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직된 춤 동호회 단체들의 참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이들 단체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해마다 ‘일반모집’으로 모아진 사람들로서, 해마다 단체를 이동하기 때문에 요사코이마쓰리(よさこい祭り)의 춤 집단(踊り子団体)은 앞서 우에노(上野千鶴子)가 말한 ‘선택연(選択縁)’적인 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린다.⁵²⁾

아리스에(有末賢)는 도쿄도(東京都) 츄오구(中央区)의 스미요시 신사제례(住吉神社祭礼)의 연구를 통하여, 인구 감소와 공동화의 영향으로 지연 관계가 없는 ‘선택연(選択縁)’에 의한 제례(祭礼) 참가자가 나타났고, 이런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전통의 해체로 보인다고 했다.⁵³⁾

이 밖에도 도쿄도(東京都) 오타구(大田区)의 신사제례(神社祭礼)에 ‘선택연(選択縁)’으로 결성된 미코시애호회(みこし愛好会)에 대하여 살펴본 기타무라(北村)의 연구⁵⁴⁾와, 마찬가지로 기타 큐슈시(北九州市)에 전해오는 고쿠라기온다이코(小倉祇園太鼓)에 증가세에 있는 ‘선택연(選択縁)’에 의한 북치기 집단을 조사한 나카노(中野, 1996)의 연구 등이 있는데, 모두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51) 전개서 45), 松平 誠(1990), p.2

52) 内田忠賢(1999) 「都市の新しい祭り」と民俗学—高知「よさこい祭り」を手掛かりに— 『日本民俗学』 220, pp.33-42

53) 有末 賢(1983) 「都市祭礼の重層的構造—佃・月島の祭祀組織の事例研究—」 『社会学評論』 32, p.60

54) 北村 敏(1989) 「東京近郊の神社と祭り—調布市を事例として」 岩本通弥他編 『都市民俗学へのいざない I 混沌と生成』, 雄山閣出版, pp.175-204

주민 감소로 조나이(町内)주민에 의해 지탱되던 제례(祭礼)가 넓은 지역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선택연(選拔縁)’의 집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처럼 ‘선택연(選拔縁)’에 의한 축제는 지역 사회의 변용을 생생히 비춰주는 존재로서 전국 각지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변화의 배경에 있는 사회구조의 변동과 관계성에 착목한 연구로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6. 나오면서

먼저 본고에서 언급된 연구는 일본에서의 축제연구 중의 극히 한정된 일부일 것이며, 그 요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내의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도 일체 언급하지 못하였는데⁵⁵⁾, 이러한 한계는 필자의 역량부족과 한정된 지면의 제한에 기인함을 밝혀 두면서,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일본에서의 마쓰리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까지는 야나기타(柳田)를 선구로 하는 민속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들은 마쓰리 속의 신(神)에 주로 관점을 두고, 마쓰리를 통하여 중세 농촌의 사회나 문화양상을 파악하려 시도 하였지만, 현재보다는 과거의 문화나 관습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그 자체나 의미에 대한 고찰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는 종교학자들에 의해 신(神)에서 사람으로 연구관점이 이동하여, 마쓰리를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성과 의미가 분석되었으며, 祭儀(ritual)와 祝祭(festivity)라는 두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마쓰리의 구조 파악이 시도되었고, 처음으로 마쓰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나 참여집단의 변화 등 사회변동에 따른 마쓰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인류학이나 도시사회학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일본 축제는 신인교류(神人共食)의 순수한 공동체 내부의 생존차원에서 연행되던 ‘고를 수 없는 인연(地縁 血縁)’ 중심의 마쓰리(祭?)가 곧 구경꾼이 동반된 화려한 제례(祭礼)로 부활하였으며,

55) 한국 내의 일본축제에 대한 연구동향은 본고의 후속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윅고 개인욕구충족(자기만족)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를 수 있는 인연(選拔緣)’ 중심의 축제(祝祭)로 그 중심축이 이동되어 있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고를 수 있는 인연(選拔緣)’ 중심의 축제(祝祭)는 담당자와 참가자 모두에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그 계층에 따라 축제의 의미도 다양하게 투영되는 중층적 구조임도 알 수 있었다.

【参考文献】

- 류정아(2013) 『축제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芦田徹郎(1990) 「祭りと現代社会・序説」 『熊本大学教養部紀要人文・社会科学編』 25, pp.31-62.
- 芦田徹郎(1999) 「現代都市祭礼のアイロニー—祭りの不可避性と不可能性をめぐって—」 宗教と社会』, 別冊1998年ワークショップ報告書, pp.99-106.
- 芦田徹郎(2001) 『祭りと宗教の現代社会学』, 世界思想社
- 阿南透(2003) 「青森ねぶたの現代的変容」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03集, pp.263-299.
- 有末 賢(1983) 「都市祭礼の重層的構造—佃・月島の祭祀組織の事例研究—」 『社会学評論』 32, pp.37-62.
- 安藤直子(2002) 「地方都市における観光化に伴う『祭礼群』の再編成—盛岡市の六つの祭礼の位置付けをめぐる葛藤とその解消—」 『日本民俗学』 231, pp.1-31
- 上野千鶴子(1984) 「上野千鶴子「第2章 祭り」と共同体」 井上俊編 『地域文化の社会学』, pp.46-78
- 内田忠賢(1999) 「都市の新しい祭りと民俗学—高知「よさこい祭り」を手掛かりに—」 『日本民俗学』 220, pp.33-42
- 北村 敏(1989) 「東京近郊の神社と祭り—調布市を事例として」 岩本通弥他編 『都市民俗学へのいざない I 混沌と生成』, 雄山閣出版, pp.175-204
- 桑江友博(2009) 「都市祝祭祭礼研究・再考」 武蔵大学総合研究所編 『武蔵大学総合研究所紀要』 19号, pp.85-115
- 塩月亮子(2000) 「沖縄における尾類馬行列の歴史社会的考察」 日本生活学会編 『祝祭の100年』, ドメス出版, pp.102-128
- 諏訪春雄(1998) 『日本の祭りと芸能—アジアからの視座』, 吉川弘文館
- 藪田 稔(1967) 「祭り参加の諸相と階層」 『人類科学』 一九集, pp.27-57
- 藪田 稔(1990) 『祭りの現象学』, 弘文堂
- 竹沢尚一郎(1998) 「博多祇園山笠」 季刊民族学』 84, pp.3-45
- 東条 寛(2006) 『都市祭礼の民俗学—四日市祭の歴史と民俗』, 岩田書院
- 中野紀和(1996) 「都市祭礼における流動層—小倉祇園太鼓を事例として—」 『日本民俗学』 205 pp.31-69
- 福武 直 (1981) 『日本社会の構造』, 東京大学出版会
- 松平 誠(1990) 『都市祝祭の社会学』, 有斐閣
- 松平 誠(2000) 「都市祝祭論の展回—「合衆型」都市祝祭再考」 日本生活学会編 『祝祭の100

- 年』, ドメス出版, pp.199-216
- 森田三郎(1980) 「長崎くんち考—都市祭礼の社会的機能について—」 『季刊人類学』 11卷1号, pp.77-115
- 森田三郎(1990) 『祭りの文化人類学』, 世界思想社
- 柳川啓一(1987) 『祭と儀礼の宗教学』, 筑摩書房
- 柳田国男(1990) 「日本の祭」 『柳田国男全集13』, 弘文堂書房
- 谷部真吾(2000) 「祭りにおける対抗関係の意味—遠州森町『森の祭り』の事例を通して—」 『日本民俗学』 222, pp.64-94,
- 米山俊直(1974) 『祇園祭—都市人類学ことはじめ—』, 中央公論社
- 米山俊直(1979) 『天神祭—大阪の祭礼』, 中央公論新社
- 米山俊直(1986) 『都市と祭りの人類学』, 河出書房新社
- 米山俊直(1999) 「地縁再生の装置としての祭礼」 『都市問題』 90卷8号, 東京市政調査会編, pp.13-23
- 和崎春日(1987) 『左大文字の都市人類学』, 弘文堂
- 和崎春日(1996) 『大文字の都市人類学的研究』, 刀水書房

논문 투고 일자 : 2017. 07. 20.

논문 심사 일자 : 2017.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7. 08. 04.

< 要 旨 >

日本の祭りに関する研究動向分析

李徳求

本稿は日本の祭りや祭礼に関する日本での研究動向を確認したものである。日本での祭りに関する研究は、1950年代までは、民俗学者らによる研究が主流を成した。柳田国男を先駆とする民俗学者らは、祭りの中の神に主に視点を置いていた。彼らは、祭りを通じて中世の農村社会や文化の様相を把握しようと試みたが、現在よりも過去の文化や慣習を調べようとしたので、祭りその自体やそれが持つ意味に対する考察はおろそかにした傾向があった。1960年代に至っては、宗教学者たちによって神から人に研究視点が移動し、祭りに参加する個人の主観性と意味が分析された。そして、祭儀(ritual)と祝祭(festivity)という二側面に着目することによって、祭りの構造の把握が試みられた。又、初めて祭りの研究に地域社会の概念が導入され、神社と祭りが地域社会の中で地域住民とどんな関わりを持って、どう位置づけられてかを明らかにする等、研究の一大転機を迎えた。1970年代から今日に至るまでは、本格的に祭りと地域社会との関係性や参加集団の変化などの社会変動による祭りの変化に焦点を合わせた人類学や社会学分野の研究が活発に行わ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Japanese festival culture

Lee, Deok-ku

This research is aimed to investigate the study trends of Maturi in Japan. The studies of Maturi in Japan were mainly conducted by folklorist until 1950. Yanagita and his fellow researchers were mostly focused on gods in Maturi and tried to capture the society and the culture of the Middle Ages. However the meaning of itself was not considered seriously since it studied about the custom and the culture of the past rather than how its effect on the current lives. However, the main-focused area of the research has been moved from gods to human beings thanks to religious scholar since 1960, which were able to allow for scholars to interpret the Maturi itself. It was also possible to analyse the structure of Maturi by investigating the aspect of both ritual and festivity.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by anthropologist and sociologist since 1970 as looking into how Maturi has been influenced by society such as the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e participants of Maturi.